

# 자차보험 있어야 가능...주차구역따라 보상 달라

또 태풍 온다는데 침수차량 피해 보상은

실내 매트까지 물 들어와 젖었다면 침수차 문으로 물 들어온 경우 보상받을 수 없어 차 안이나 트렁크 물건 보상 대상 안돼

태풍 '타파', '미탁'에 이어 '하기비스'가 온다. 이번 태풍은 타파-미탁보다 더 강력하다고 예보됐다. 강풍에 몰락한 차량이 동남해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침수차량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이지만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은 대부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개인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엔진에 물 유입되면 침수차량= 침수차량은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을 말한다. 대개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었다면 침수된 것으로 보면 된다. 엔진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는데 침수 시 이 곳을 통해 물이 흡입돼 엔진이 정지되고 재시동이 안 되는 경우다.

밸브 장착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으로부터 약 50cm 정도여서 안전을 위해선 웅덩이가 성인 남성 키의 무릎 높이 이상 또는 자동차 바퀴의 절반이 넘을 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다.

침수차량은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한다. ◇침수차량 확인 방법은=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침수차량 확인이 10일가량 걸렸지만 최근엔 실시간으로 침수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눈과 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진흙 냄새나 심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난다면 침수 피해를 의심해야 한다. 또 안전띠를 끈 채 차량에 탑승 후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변색 여부를 살피는 것도 요령이다. 시거 잭과 시트 스프링,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등 진흙을 닦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중고차 구매 시 인근 정비소에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상은 어떻게=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침수차량이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잔존차치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러나 자동차 가치보다 수리비가 적은 경우는 수리를 거쳐



지난해 8월 갑자기 쏟아진 비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주택가 도로가 침수돼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차량 수십대가 침수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차량침수 피해 대처

- 1 차량의 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
  - 배터리 단자 신속하게 분리 후 오염된 부분 수돗물로 세척
- 2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경우
  - 엔진마찰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시동 걸어서는 안됨
  - 브레이크를 자주 작동시켜 작동 부분 건조
- 3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
  - 타이어가 잠기지 않게 물 높이 판단
  - 시동이 꺼지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저속 및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운행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대형 화물차 등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차 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이 인정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라면 문제가 없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거나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차 내 물품보험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시점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개인 과실이 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했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빠진 경우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한다. 그러나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등에서 침수하면 운전자 부주의를 인정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

◇침수차량 어떻게 처리되나=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된 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가 침수차량을 인수해 폐차장에 넘겨진 후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를 폐차할 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벤츠 딜러 더클래스 효성, 2019 오토살롱워크 참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 '2019 오토살롱워크'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오토살롱워크는 튜닝 전시회 '서울오토살롱'과 정비 전시회 '오토워크'가 통합 운영한 첫 해로 역대 최대 규모(4만2930㎡)로 꾸며졌다.

올해는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정비·세차), 케어, 부품, 튜닝, 전장용품, 액세서리 등 산업 전반의 유품과 서비스 전시, 모터스포츠, 오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자동차 문화, 캠핑가, 완성차 영역까지 전시 품목을 폭넓게 확대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와 콘셉트카를 소개하는 오토피에스타 코너에 부스를 마련하고 최근 새롭게 공개된 4세대 '더 뉴 A 클래스'와 '더 뉴 GLC'를 비롯해 'E 클래스', 'S 클래스', 'GLC' 등 벤츠의 다양한 모델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2019 오토살롱워크 오토피에스타는 전년 대비 약 25% 확대된 2000평의 전시 면적에서 운영되며, 이 중 더클래스 효성은 방문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차량을 살펴보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납차 브랜드 중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는 승용차용 신제품 '마제스티 9 솔루스 TA91(마제스티 9)'과 '엑스타 PA51'이 '2019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 62주년을 맞았다.

GOOD DESIGN AWARD 2019



이성 깃발 형태를 응용해 역동성을 느끼도록 디자인이 구현됐고, 트레드에는 비대칭 디자인을 적용하고 물의 배출을 4방향으로 유도하여 배수와 마일리지 성능을 높이고 홈 깊이의 차별성을 뒤 소음과 그립 성능을 강화시켰다.

'마제스티 9'는 마제스티솔루스의 후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이다. 마모 성능과 눈길 제동력을 개선해 안전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패턴 블록 배열과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줄였다.

또 사이드월(타이어 옆면)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외양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데코레이션을 넣었고, 트레드(타이어 접지면)에는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과 모던한 곡선 디자인을 조화시킨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엑스타 PA51'은 북미 전용 사계절 타이어로 스포츠 성능과 컴포트 성능을 함께 갖춘 신제품이다. 사이드월에는 레

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전무는 "이번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미래지향적 디자인 역량과 기술력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연구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기아·르노삼성, 태풍 피해 차량 특별 지원 서비스

### 수리 비용 최대 50% 할인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한다.

현대·기아차는 연말까지 수해차량 지원서비스와 차량 정비,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 생필품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에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를 해준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이고 300만 원 한도다.

현대차는 수해 차량 수리 중 렌터카를 대여할 때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기아차는 수해 차량을 폐차하고 기아차 차량을 재구매하면 최장 5일간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이며 법인, 영업용, 화물 차량은 제외다. 또,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라면 등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차 차량을 투입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태풍으로 인한 파손 및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도 이날 말까지 진행한다.

태풍 피해 고객은 10월 구매 혜택에 50만원 특별 추가 할인을 더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보험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수리(비보험)를 할 경우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원 한도)한다.

또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삼성의 '내 차 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제네시스, 전 모델 바뀌타는 '구독서비스' 연장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70에서 G90까지 모든 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인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내년 5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2월 현대캐피탈 차량공유 플랫폼 딜카, 중소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월 구독료를 내면 원하는 차량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프로그램을 국내 완성차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매월 구독료 149만원을 내면 G70, G80, G80스포츠 3개 모델 중에서 매월 최대 2회씩 바꿔

탈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제네시스 플래그십 모델인 G90을 무료 시승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이달 11일부터는 G90 무료 시승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서비스임에도 누적 가입 회원이 1300명에 이르고 구독 대기 고객이 360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용자 가운데 80%는 구독형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연장 신청하는 등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